

# “現 31~63세 절반이 노후 난민 가능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 국민연금·퇴직연금 가입 안해... 중복 수급률 29% 불과 연금 사각지대 여성이 남성의 2배... 일자리 대책 시급

1952~1984년 출생자의 절반가량이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1년 말 기준으로 27~59세에 해당하는 이들은 공적연금은 물론 사적연금조차 들지 않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함으로써 노후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립 연구원은 22일 ‘다중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1988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해 대표적 사적연금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다중소득보장체계를 구축했다.

연구진은 기금소진 논란에 시달리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정책에 기초해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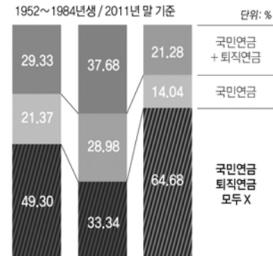
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1952~1984년생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급률과 급여수준을 통합적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1952~1984년생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중복 수급 비율은 29% 정도로 추정됐다.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21%가량이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1952~1984년생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49.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비율이 남성 38%, 여성은 21%였다.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남성 29%, 여성은 14% 수준이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남성 33.34%, 여성은 64.68%로 추산됐다. 공·사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다는 말

국민연금·퇴직연금 수급률



이다. 출생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950년대 후반 출생자는 퇴직연금 도입 당시 이미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퇴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1957년생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비율은 19.65%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1980년생은 49.89%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아도 퇴직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노후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1952~1984년 출생자 중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수급자 전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연금 수령액 비중)은 대략 30%에 그쳤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1952~1984년 출생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 소득대체율도 대략 43~46%에 머물렀다.

다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제도가 무리되면서 1980년대 초반 출생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 소득대체율은 50~52%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연구진은 “최근 출생자조차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가지고는 적정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은퇴해도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게 중고령자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짧은 CI 논란에도 ‘모르쇠’

광주비엔날레재단 “감상자의 자유...바꿀 생각 없어”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2일 새롭게 만든 CI(Corporate Identity·통합된 기업 이미지)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CI와 유사(광주일보 22일자 1면)하다는 의견에 대해 디자이너의 말을 빌려 “서로 닮았다고 느껴지는 두 개의 심벌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감상자의 자유다”라고 밝혔다.

유사한 형태를 취한 다른 CI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비슷하게 느낀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민들이 두 개의 CI를 비슷하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CI를 제작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디자이너에게 확인한 결과 “비슷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

다”라며 두 CI의 유사점에 대해 밝혔다.

문제는 CI가 특정 기관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얼굴’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광주비엔날레 CI는 앞으로도 정부 핵심 사업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선포한 ‘창의적 혁신과 공존의 글로벌 시각 문화 매개체’라는 비전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발표는 안 됐지만) 지난해 7월 이미 최종 시안이 결정된 상태이고, 이후 정부의 CI를 알았다 하더라도 사각 틀이라는 이미지가 같다고 해서 같은 CI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

## 성완중 측근 체포·줄소환

‘리스트’ 수사 속도...금품 로비·비밀 장부 존재 추궁

검찰이 ‘성완중 리스트’ 수사에 급격히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과 ‘리스트 8인’의 과거 행적을 복원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금품이 오간 상황을 구체적 물증과 진술로 입증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2일 새벽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첫 잡고

박 전 상무와 이씨는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날 밤 대책을 논의했던 회의에 나란히 함께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른바 ‘비밀장부’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떼어 조사하면서 성 전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과 비밀장부 존재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상무를 상대로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에 대한 진술을 최대한 들어보고 이씨를 통해 박 전 상무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신원 박성철 회장 ‘탈세 혐의’ 고발

국세청 “증여세 탈루”

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검찰 등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박 회장의 탈세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주)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종료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주)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보인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세 무당국은 올해 초 시작한 세무조사를 통해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주)신원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그룹 관계자는 “박 회장이 워크아웃 당시 주식을 모두 반납하고 사재까지 출연해 신원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부인과 아들 등 가족 이름으로 신원 주식을 취득하면 외부의 시선이 불편할 수 있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면서 “당시에는 이런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주식 취득 자금은 (박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역 케이블 채널 2곳을 매각해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송씨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19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원그룹 본사가 마포구에 있는 만큼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주체가 정해지는 대로 박 회장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1952년 암살자의 총 이승만을 겨누다

미국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김태진 국제지도수집가협회 한국대표가 이승만 대통령 암살 시도 장면을 포착한 사진을 2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승만 대통령 암살 시도는 1952년 6월25일 부산에서 열린 ‘6·25 2주기’ 행사 도중 유시태가 이 대통령을 권총으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사진에는 이 대통령이 연단에서 원고를 보며 연설하는 사이 연단 뒤쪽의 남성이 권총을 들고 이 대통령을 겨냥하려는 모습(점선)이 잡혔다. 이 사진은 미군 정보부대(CIC)가 만든 사적첩에 실려 있다. /연합뉴스

## 수도요금, 지역따라 최대 4배 차이

광주시 t당 544원...전남 평균 811원

전국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에 따라 수도료 판매요금이 최대 4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5년 상수도 통계를 살펴보면 경북 청송지역 주민들이 t당 32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수도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강원도 정선군 주민들은 이보다 4.4배 비싼 t당 1448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군 다음으로 비싼 곳은 평창 1203원, 영월 1090원 등이었으며 수도료 판매가 상위 5개 시·군 가운데 강원도 지자체가 4곳

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t당 544원이며, 전남도는 22개 시·군 평균 811원이다.

수도료 요금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자체마다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효율성은 떨어지고 생산원가가 치솟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료 생산원가를 비교하면 강원도와 경북, 충북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평창군이 t당 3900원으로 가장 비쌌고, 경북 의성 3873원, 경북 성주 3840원, 영월 3527원, 진도 3296원, 충북 괴산 3292원 등의 순이었다. /박진표기자 lucky@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로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무안공항면세점 경력직 채용공고**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경력직에 한함)

- 직 종 | 정규직
- 채용분야 | 무안공항 면세점 판매직
- 인 원 | 0명
- 채용방식 | 공개채용
- 경력기간 | 1년 이상
- 임금조건 | 회사내규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면접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채용분야 우대자격

- 면세점, 대형마트, 백화점 판매업무 경력자
- 외국어(중국어) 소용 가능자

원서접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온라인접수  
접수기간 : 2015. 04. 23 ~ 2015. 04. 30  
접 수 처 : (주)국민산업 인사총무팀(062-602-5606)  
광주광역시 서구 중앙로50번길 55 3층 (주)국민산업 ho0155@nate.com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부착
자기소개서	1부	자유양식에 의거 기재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이 내 발행분
경력기술서	1부	자유양식에 의거 기재 / 근무부서, 직무, 최종직위, 직급, 근무기간 명기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별첨)

\*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국민산업**